

회고 2007

2012 여수엑스포 유치

전남 도약 획기적 디딤돌 새로운 남해안시대 열다

‘변화’와 ‘격동’의 연속이었던 2007년이 저물고 있다. 지난 19일 치러진 제17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광주·전남은 10년만에 야권으로 바뀌었다. 또 올해에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권을 확보하는 등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싹을 틔워 시·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2007년 광주·전남의 굵직한 현안을 되돌아 본다.

10조원 생산 유발 9만명 고용 효과 SOC 확충 2011년까지 11조 투입

지난 11월 27일은 광주·전남 미래를 밝혀줄 이정표로 기록된 날이다. 여수가 이날 새벽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박람회기구(BIE) 제142차 총회에서 2012년 엑스포 개최지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여수는 이날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라이벌 모로코를 77대 63으로 따돌려 지난 1998년 엑스포 개최계획 수립 이후 10년동안 품어왔던 ‘숙원’을 달성했다. 여수엑스포는 오는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여수시 신항지역 엑스포 단지에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열린다. 여수엑스포 주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해결 방안을 찾고 해양자원을 보전함과 동시에 바다에서 미래 인류의 풍요를 가꾸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수엑스포는 인류 공동번영을 꾀함과 동시에 약 1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9만여 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둬 획기적인 전남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추산이다. 여수엑스포를 성공리에 개최할 경우 당장 그동안 개발에서 뒤떨어졌던 전남의 획기적인 발전이 전망된다. 정부는 여수 주변지역에 건설되는 고속도로와 철도, 국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행사 직전인 2011년까지 11조원을 투자하게 된다. 또 SOC 투자와 함께 엑스포 단지 건설 등에 모두 19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정부가 밝힌 바 있다. 이와함께 여수엑스포는 새로운 ‘남해안시대’의 개막을 예고했다. 엑스포가 여수 등 전남뿐만 아니

라 부산·경남과 제주까지 아우르는 남해안벨트 도약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와 부산시·경남도·제주도 등은 최근 여수엑스포 성공에 적극 협력해 새로운 남해안 시대를 열자는 데 합의했다. 또 시·도지사들은 여수엑스포를 발판으로 ▲남해안 섬을 연결하는 일주도로 ▲남해안 고속화 철도건설 ▲남해안 해양 코루스 산업 육성 등 3대 프로젝트를 공동추진해 남해안의 면모를 일신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계획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연륙·연도교 사업과도 연계된다. 남해안 고속화 철도는 목포~순천~진주~부산을 연결하며 이 사업에는 모두 7조 5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됐다. 해양 코루스 사업은 부산~마산·거제~여수·거문도~흑산도·홍도~완도~제주~부산을 운항하는 크루즈선을 띄우며 3개 시·도에 각 거점별 전용부두를 설치해 제주와 삼각구도를 형성한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전남을 중심으로 새로운 남해안시대를 열어가게 될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는 지역 주민들에게 올해 가장 큰 뉴스가 됐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지난 1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42차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여수가 2012 엑스포 개최지로 결정되자 한국대표단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뜨거운 지지 보답 못해 송구”

정동영 광주 방문

17대 대선에 통합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패배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23일 신당의 ‘정치적 메카’인 광주를 찾아 향후 거취 등에 대한 구상에 들어갔다. 정 전 장관은 광주 서구의 한 복지시설에 사흘간 머물며 피정(避靜)의 시간을 갖을 예정인데, 그의 거취는 대선 이후 거센 후폭풍에 직면한 범여권의 진로찾기에도 맞물려 있어 관심을 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광주 시내 한 음식점에서 광주·전남선대위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 뒤 가톨릭단체가 운영하는 정신지체장애인시설인 서구 용두동 ‘사랑의 집’으로 이동했다. 그는 이 곳에서 “부족한 저에게 광주 시민들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기쁨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광주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지난 설날과 추석에도 이 곳을 찾은 바 있는 정 전 장관은 “장애인 형제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할 때마다 많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다”며



17대 대선에 통합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패배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23일 광주시 서구 용두동 ‘사랑의 집’에서 정신지체장애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는 이 곳에서 사흘간 봉사활동을 하며 향후 거취를 고민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리량기자 jrw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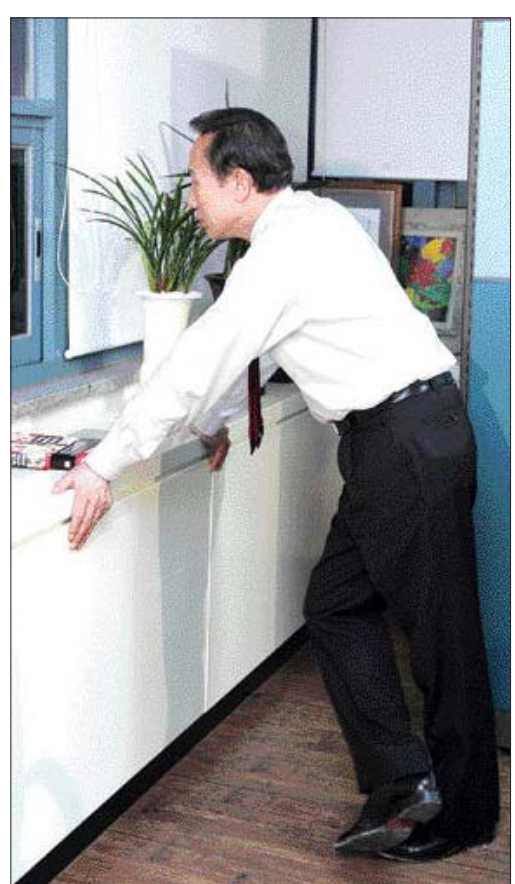
“비록 대통령이 못됐지만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라가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전 장관은 광주·전남 선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한 오찬에서 “광주 정신을 계승한 개혁정부가 탄생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 목이 메이기도 한다”며 “광주·전남에 큰 마음의 빛을 쬐다”고 말했다. 그는 사랑의 집에서 성탄절을 보낸 뒤 26일께 서울로 돌아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장관이 이번 ‘피정’을 통해서 어떤 카드를 꺼낼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가깝게는 신당의 전당대회,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의 구심점 회복이라는 녹록지 않은 과제가 놓여있기 때문이다. 정 전 장관은 전남 신당 전 북선대위 해단식에서 “대선이 끝났어도 큰 뜻을 이루려는 내 꿈은 원 없이 커질 것”이라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긴 바 있다. /정우식기자 who@kwangju.co.kr

위원장 이경숙·정운찬·손병두 등 거론

■인수위 인선 어떻게 돼가나
비정칙인 기용 유력...26일쯤 발표
5~6개 분과 150명 내외 꾸려질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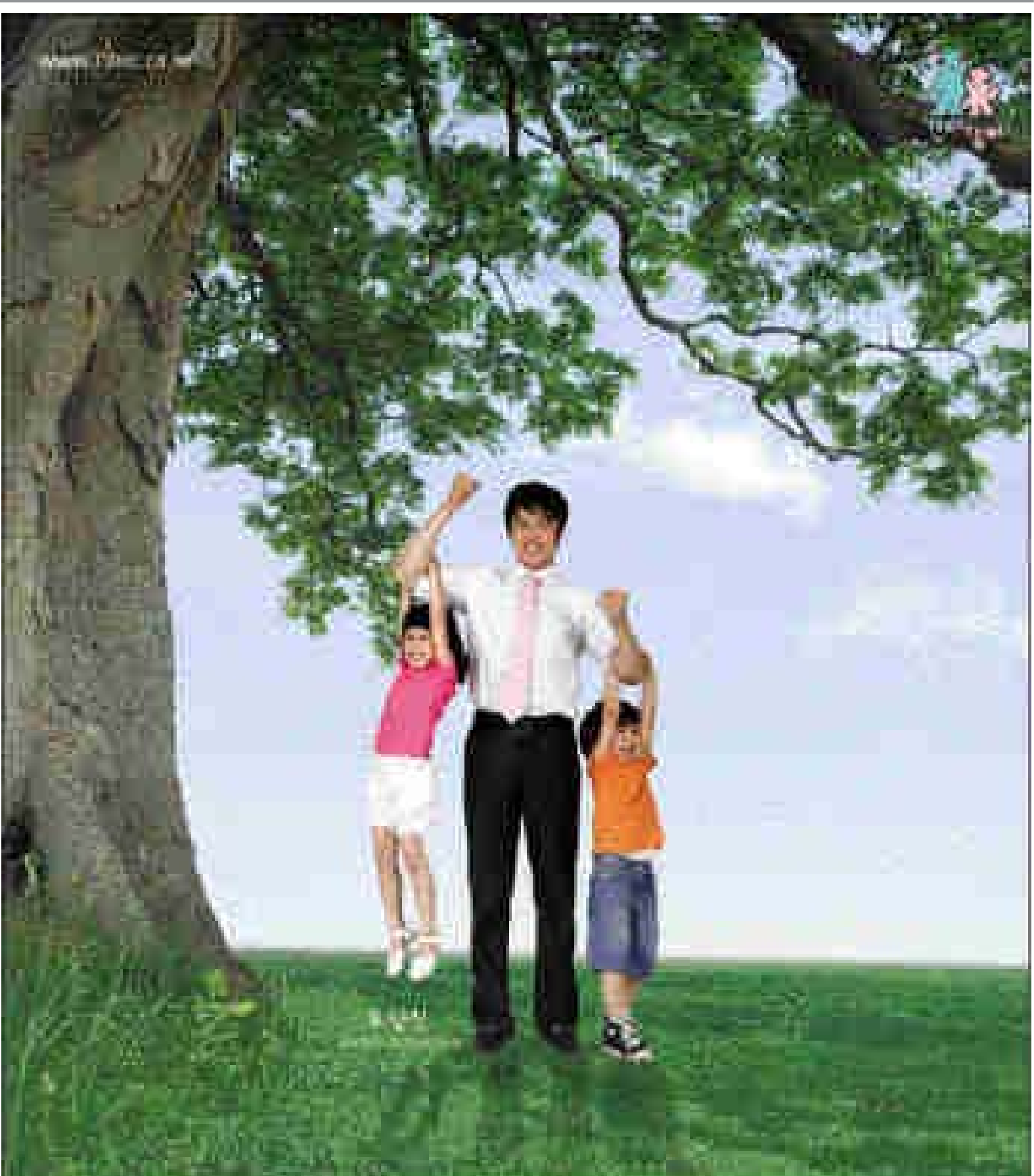
이명박 정부의 색깔을 드러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의 모습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수위 인선안이 성탄 절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인수위 구성은 이명박 당선자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 운영 방향과 함께 내각 구성안을 엿볼 수 있는 핵심 기능자일 뿐 아니라 당선 후 첫 인사라는 점에서 ‘이명박식 용인술’을 엿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도 할 전망이다. 현재 한나라당 안에서는 인수위 인사에 대한 ‘합구력’이 내려지면서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 당선자가 그동안 몇 차례 대략적인 인선 기준을 밝힌 바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한 인수위원 인선을 꾸리겠다는 것이라며 “인수위원장도 뜻밖의 인물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당선자 측근들의 말을 종합하면, 인수위원장은 ‘참신성’과 ‘경제마인드’를 갖춘 비정칙인 출신 인사의 기용설이 유력하다. 인수위원장 후보로는 우선 이경숙 속명여대 총

장과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 등을 포함한 학계 출신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 총장은 숙대 혁신을 이끈 대학 CEO로서 선대위 구성 당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이 당선자가 직접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총장과 손 총장은 경제적 마인드를 겸비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밖에 어운대 전 고려대 총장, 안병만 전 한국외대 총장, 한나라당 의원 출신인 박세일 서울대 교수, 윤여준 전 여의도연구소장 등도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관료 출신 중에서는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장관, 외무장관 출신의 한승주 고려대 총장서리가, 행정가를 지낸 인물로는 이의근 전 경북지사 등이 하마평에 올라 있다. 이밖에 기타 인수위 인사들에 대한 인선 작업도 정두언 의원, 이재오 의원 등 이 당선자 측근들 사이에서 세 가지 루트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150명 안팎 규모로 구성될 인수위의 조직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인수위는 ▲기획 ▲정무 ▲경제 ▲외교·안보·통일 ▲사회·문화·여성 등 5~6개 분과를 기본으로 하되 한반도대응 하임, 공공개혁팀, 외국인투자팀을 별도로 둘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에는 강만수 전 재정경제원 차관과 환경기 전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 외곽 정책자문그룹인 국제전략연구원(GSI)과 바른정책연구원(BSI)의 유우익, 백운호 원장, 광승준 고려대 교수, 김우상 연세대 교수 등이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에 대해 “26일쯤 대통령직 인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서울 종로구 안국포럼에서 청박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수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선자 대변인 비서실장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변함없이 늘 사라져- 건강보험은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